

All Together!

강북삼성병원 | 우리병원 의사이야기

의사이야기 더 알아보기



“
귀없이
태어난 아이들,
소이증 재건
수술 명의

성형외과
오갑성 교수

“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

소이증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적정 나이는 일반적으로 만 8세부터 만 15세 사이. 어른의 귀와 비슷한 크기가 되는 때가 다름 아닌 만 8세경. 귀 재건 수술에 사용하는 가슴 부위 갈비뼈 연골 역시 그즈음 적절한 수준이 된다. 반면 만 18세경부터는 연골이 석회화되어 연골들 제작이 어려울 수 있다.

“수술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열등감을 느끼지 않게 배려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럴 일이 아닌데 아이에게 죄책감을 가진 보호자들이 많아요. 혹시라도 주변에서 놀림을 받아서 아이가 상심하면 '의사선생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라고 말씀드려요. 자녀를 위해 부모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해결책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지요. 주변에서 저에게 명의라고 말씀해주시지만, 그런 평가는 모두 환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살아있는데도 죽고싶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형외과는 그런 분들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
폐암수술 이후
재활과
일상회복에
필요한
토달케어까지

흉부외과
강두영 교수

“ 일상부터 생명까지 두루 보고 자세히 살피다 ”

흉부외과는 크게 심혈관외과와 폐식도외과로 나뉜다. 그 중에서 강두영 교수의 세부전공은 폐식도 분야. 각종 폐질환과 식도질환, 종격동, 기흉, 다한증 등 심장과 혈관을 제외한 흉부의 모든 질환을 다룬다. 생명을 위협하는 암은 물론 일상의 불편을 일으키는 질환까지 두루 살피는 강두영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일반적으로 흉부외과라고 하면 심장과 혈관을 다루는 분야를 떠올립니다. 폐식도 분야에서 중한 질환이라면 단연 폐암입니다. 병원마다 환자들이 특정 진료과를 찾는 이유는 다양한데, 3차 병원인 강북삼성병원에서는 가벼운 질환보다는 암 환자 비중이 더 큼니다. 환자들이 의사를 만났을 때 건네는 질문은 비슷합니다. 수술이 어떻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떤 치료를 하는지도 알고싶어하지만 '이제부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해 합니다. 어떤 음식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운동은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할지, 건강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확신하고 싶어하죠. 강북삼성병원에서는 긴밀한 협진을 통해 수술 전후 관리에 집중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위중할 때는 다른 진료과에 바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기도 합니다. 사실 규모가 큰 병원에서는 시도하기 쉽는데, 그만큼 우리병원은 의료진 사이의 신뢰도가 탄탄합니다. 토달케어라고 하면 거창해 보일 수 있지만, 환자분들이 강북삼성병원에 오면 필요한 치료를 다 받을수 있다고 느낄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
고관절
건강을 지킬
해법이
생긴다

정형외과
박윤수 교수

“ 이름만 들어도 믿음직한 고관절 명의 ”

대다수 인간은 두발로 서서 걷는다. 인류는 직립보행을 하면서 손을 자유롭게 쓰며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똑바로 서서 걸으면서 인간의 하체는 더 많은 무게를 감당해야 했다. 나이가 들며 고관절이 아픈 것은 어쩌면 인간이 감당해야 할 숙명. 그러나 아프다고 무작정 참을 필요는 없다. 박윤수 교수를 만나면, 좀 더 오래 고관절 건강을 지킬 법이 생긴다. 수술 후 환자들의 생활습관도 튼튼한 인공관절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박윤수 교수는 “평소 별다른 이상이 없더라도 수술 초반 5년동안은 1년에 한 번, 2-3년에 한번씩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설령 환자가 문제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검진을 통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들은 나이와 성별은 물론 생활배경도 제각각 다릅니다. 그렇다고해도 환자를 대하는 근본에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도 좀 더 환자들에게 인간적으로 다가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드는 날도 생깁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진료실에서 좀 더 따뜻한 의사가 되려고 지금도 노력중입니다.”





“**골든타임 없는 뇌혈관 질환, 뇌졸중·뇌출혈 의심되면 바로 병원으로!**

신경외과 정연구 교수

“환자를 향한 열정”

정연구 교수에게는 직업병이 있다. 언제 갑자기 찾아올지 모를 응급환자를 위해, 늘 휴대폰을 놓지 않는다. 이같은 습관은 휴일이나 휴가 중에도 변함이 없다. 24시간 긴장을 풀 수 없는 신경외과 의사의 삶. 그러나 ‘사람을 살린다’는 사명감이 그의 발걸음을 병원으로 향하게 한다.

“뇌출혈과 뇌경색을 포함한 뇌졸중은 무조건 병원에 빨리 올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뇌를 다루는 의사들은 ‘Time is brain(시간이 뇌다)’라는 관용구를 쓰기도 합니다. 간혹 ‘골든타임이 몇 시간이냐’고 질문하는 분도 있지만, 골든타임 안에 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병원에 오는 것이 좋습니다. 뇌출혈은 알지 못하고 있던 뇌혈관의 병으로 인해 갑자기 파열되어 증상이 생깁니다. 갑자기 생긴 두통이나 말이 안 나오고 느려지는 현상, 한쪽 팔다리나 얼굴이 마비되는 등의 신경학적 이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환자에게 애정을 갖고 자주 살필수록 환자의 상태가 좋아진다고 믿고 있어요. 전공의 중에서도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환자를 살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의사라면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장암, 어려운 수술이지만 완치를 목표로 하다.**

외과 권재우 교수

“최선에 대한 실력으로 오직 환자에 집중하다”

사람들은 살아가며 선택을 한다. 어렵지만 도전하고 싶은 길을 택할 수도 있고, 더 안정적인 길로 가기도 한다. 굳이 따지자면 권재우 교수는 전자에 가까웠다. 사람의 생명 유지에 직접 관여하는 외과, 여기에 까다롭기로 알려진 간담체 분야에서도 고난도 수술에 도전했다. 어려우니 힘들 것 같다는 말보다, 어려워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환자들을 만나는 의사가 바로 권재우 교수다.

“환자들이 저에게 ‘선생님 가족이라면 어떻게 치료 하시겠어요?’하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사실 이 질문은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주세요’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나라면’ 혹은 ‘내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치료 할까 고민하며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환자에게 제일 자신있고 잘하는 방식으로 수술합니다. 환자들과 대화할 때도 의학용어를 거의 쓰지않고 쉽게 설명하려고합니다. 제가 배운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강북삼성병원에도 임상적·학술적으로 훌륭한 성과를 내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 역시 새롭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유방암은 완치할 수 있는 암입니다.**

외과 김은영 교수

“한 명의 환자를 위한 온전한 결정”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하게 열리고 있다. 그렇지만 의사로부터 ‘암’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특히 여성들이 주로 신경쓰는 암은 유방암이다. 암 진단을 받고 걱정하는 환자에게 김은영 교수는 “유방암은 완치할 수 있는 암”이라며 차분한 목소리로 다독인다.

“유방암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주요 원인으로서는 외인성 호르몬, 서구화된 식이 및 생활습관 등 환경적인 요인과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도 진단 당시에 1기에 해당하는 초기라면 5년 생존률이 95~99%로 높습니다. 설령 말기에 발견하더라도 다른 암과 비교하면 치료 성적이 좋은 편이구요. 그래서 환자들에게도 ‘유방암은 완치가 가능한 암’이라고 용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유방암 중에서 가족력과 관련 있는 유형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 유방암의 5% 내외입니다. 대다수는 다른 원인 때문에 암이 발생하고, 그 원인이 복합적입니다. 원인을 하나로 규정짓기는 어려우니,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소아심장 전문가**

소아청소년과 객지희 교수

“아파도 울어도 아이들은 좋은 방향으로 자랍니다.”

아이들은 아프면서 자란다 고들 한다. 그래도 이왕이면 아프지 않고 무탈하게 자랐으면 하는 것이 어른들의 마음이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로서 아이들을 치료해온 객지희 교수 역시 마찬가지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진심으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와 함께 아이들을 키운다는 심정으로 최선의 치료를 시행한다.

“위기에 처한 생명을 제가 살렸다기 보다 의사로서 작은 도움을 보탤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술받은 아이들이 회복된 후에 활짝 웃어줄 때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되길 잘했다고 느껴요. 이후에도 아이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하게 커가는 과정을 보면서도 부듯함이 전해오지요. 아이들에게 진짜 부모님이 있지만, 저도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또 한명의 부모라는 자세로 환자들을 만납니다.

의사로서의 철학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딸,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식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고민하며 최선을 다 할 뿐입니다.”



“ 성장과 발달에 신경쓰며 아픈 곳까지 낮게하는 소화기 영양 전문가 ”

소아청소년과 **김은실** 교수

“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염증성장질환 ”

소아청소년과 안에서도 그의 전문 분야는 소화기 영양분과다. 아이들이 태어나 제일 먼저 직면하는 생존 문제인 '먹고 싸는 것'과 관련한 일을 두루 살핀다. 소화기 문제와 더불어 소아비만과 소아저체중 등 성장과 연결되는 특징적인 영양 문제도 다룬다. 요즘 들어 김은실 교수가 중점적으로 살피는 영역은 소아청소년 환자의 염증성장질환이다. 이는 6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 대표적으로는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이 여기 속한다.

“최근까지도 염증성장질환은 성인이 주로 걸리는 병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역학조사를 해보면 25% 가량이 소아청소년 환자들이예요. 발병 연령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장에 염증이 있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는 혈변을 보기도 하는데요. 성인과 달리 소아청소년 환자들은 성장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하루 빨리 진단 후 조기에 집중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진료할 때는 정서적인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내시경실 분위기가 아이들에게는 낯설기만 한데 부모와도 떨어져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이를 안심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통하는 연령대의 아이들에게는 '불편할수 있지만 위험한 것은 아니다'라고 정확히 설명을 해줍니다.”



“ 대장암, 치료보다 예방이 더 빠릅니다. ”

소화기내과 **정윤숙** 교수

“ 환자와 함께, 환자에게 더 가까이 ”

과거보다 생존률이 올라갔다고 해도, 환자들이 느끼는 암의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다. 더구나 발생률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암이라면 느낌이 더 달라진다. 특히 대장암은 남녀 모두에게 자주 발생하는 암.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대장암을 치료하기 위해 정윤숙 교수는 더 나은 치료법을 찾고자 연구에 집중하며 환자의 곁을 살핀다.

“대장암은 발병률은 높지만 예방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 폴립을 사전에 발견하고 제거하면 대장암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조기대장암의 경우 내시경적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례도 많고요. 대장암과 대장선종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는 나이입니다. 성별로는 남성이고요. 두가지는 교정할 수 없는 위험인자입니다. 또 다른 사회적인 위험인자는 흡연과 비만인데요, 이 두가지는 교정이 가능합니다. 흡연량이 많을수록,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대장선종 발생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 다정한 기다림으로 힘 전하는 마음 주치의 ”

정신건강의학과 **전상원** 교수

“ 다정한 기다림으로 힘 전하는 마음 주치의 ”

많은 현대인이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간다. '인생은 고행'이라는 명제를 숙명으로 받아들여 '이 정도로 힘들다고 해도 될까?' 스스로 단정치고 마음의 소리를 외면하기도 한다. 하지만 마음도 지치면 쉬어야하고,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한다. 가정에서의 갈등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등 다양한 이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전상원 교수는 기꺼이 마음 주치의가 되어준다.

“많은 환자가 무기력하고 피곤하면 우울증, 숨이 안쉬어지고 가슴이 뛰면 **공황장애**, 가슴이 불타는 것처럼 뜨겁고 화가 치밀어 오르면 **화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료를 하다보면 이런 구분이 무의미해요. 많은 정신질환이 스트레스에서 비롯됩니다. 스트레스의 요인은 다양하고, 환자마다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척도들도 있지만, 한국 실정과 맞지 않은 항목들이 많습니다. 한국인이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족이나 대인관계 등은 항목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요.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크게 받아들이고, 청소년들도 친구와의 갈등이 큰 스트레스입니다. 어른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끼지요. 이처럼 외국과는 다른 한국의 문화를 반영해서 각각의 척도를 개발했습니다.”



“ 진료실을 넘어 삶을 돌보는 마음 전문가 ”

정신건강의학과 **조성준** 교수

“ 진료실을 넘어 삶을 돌보는 마음 전문가 ”

'나답게 산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인생의 과제다. 자기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마음의 병이 찾아온다. 삶의 태도나 모습이 마음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조성준 교수가 진료실을 물론 진료실 밖에서도 환자를 만나, 질환뿐 아니라 그들의 삶까지 살피고 보듬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현'이라는 말이 현악기의 줄을 튕낸다는 뜻이잖아요. **조현병**은 튕음을 잘못하면 어긋난 소리가 나듯, 뇌기능의 균형이 깨진 상태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에요. 튕음을 잘 하면 다시 웅은 소리가 나는 것처럼, 뇌도 균형을 잘 맞추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뜻도 담겨있습니다.”

“직장인의 정신 건강을 검진하면,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어도 약간의 조연만으로도 더 잘 지내실 분들이 계세요. 큰 문제가 없는 사람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사업장에 찾아가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드리고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영역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 생물학적 제제와 JAK 억제제

은영희 교수
강북삼성병원 류마티스내과

류마티스관절염은 여러 관절의 염증을 특징으로 하는 원인 미상의 만성적인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은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및 예후 개선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현재 다양한 생물학적 제제들이 허가되어 사용 중입니다.

생물학적 제제란 사람의 유전자로부터 유래되어 유전공학적으로 생산된 단백질로, 동물이나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공정에 의해서 생산됩니다. 류마티스관절염에서 사용되는 생물학적 제제들은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 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들을 억제합니다. **JAK 억제제**는 생물학적 제제는 아니지만 사이토카인의 세포내 신호 전달을 억제하는 소분자 경구 합성 제제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사용되는 생물학적 제제, JAK 억제제의 종류

항사이토카인 제제

- 종양괴사인자 (Tumor necrosis factor, TNF) 억제제: Etanercept (엔브렐, 에틀로체, 유셉트), Adalimumab (휴미라, 아달로체), Infliximab (레미케이드, 램시마, 레마로체), Golimumab (심퍼니)
- 인터루킨-6 (Interleukin-6, IL-6) 억제제: Tocilizumab (악템라)

면역세포 억제제

- T세포 이차 신호 억제제: Abatacept (오렌시아)
- B세포 억제제: Rituximab (맵테라, 트룩시마)

세포내 신호 전달 억제제

- JAK (Janus kinase) 억제제 : Tofacitinib (젤잔즈), Baricitinib (올루미엔트), Upadacitinib (린버크)

효과

우리나라에서는 류마티스관절염의 이차 치료제로써 승인이 되어 있으며, 고식적 항류마티스약제 치료로 질환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서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거나 메토티렉세이트와 병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관절염 이외에도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베체트씨병 등의 질환에서도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주의해야할 부작용

- 주사 부위 부작용 (발적, 부종, 가려움증)
- 혈구감소증, 간수치 상승 (모니터링 필요)
- 감염
 - 결핵: 약제 시작 전 반드시 잠복결핵 검사 필요
 - 대상포진 (JAK 억제제)
 - B형간염 재활성화
 - 최근 JAK 억제제의 심혈관질환 및 암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보고가 있어 후속 연구 결과의 확인 및 주의를 요함.



면역글로불린 G4 연관 질환

(Immunoglobulin G4-related disease, IgG4-RD)

알아보기



면역글로불린 G4 연관 질환은 다양한 장기를 침범 가능한 섬유염증성 질환으로 2012년 그 명칭이 제시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질환입니다. 과거에는 침범 장기에 따라 미쿨리츠병 (Mikulicz's disease), 자가면역 췌장염, 리델 갑상샘염 (Riedel thyroiditis), 후복막 섬유화증 (retroperitoneal fibrosis), 염증 거짓종양 (inflammatory pseudotumor) 등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췌장과 담도, 침샘과 눈물샘, 림프절, 신장, 갑상선, 대동맥 및 신경계 등의 대부분의 장기를 침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증상과 함께 체중 감소, 피로, 관절통 등과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년과 노년 남성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발병 장기에 따라 성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발병 기전은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type 2 helper T (Th2) 세포와 조절 T (Treg) 세포의 사이토카인이 발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입니다.

면역글로불린 G4 연관 질환은 섬유화 및 장기 종대를 나타내는 경우가 흔하므로 종양과의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진단 ※ 조직검사가 중요, 혈청 IgG4의 상승이 흔함

조직검사 상

- 림프형질세포 침윤
- 많은 수의 IgG4 양성 형질세포 침윤
- 나선형 섬유화
- 폐쇄성 정맥염
- 호산구 침윤 등의 소견이 관찰됨



치료

일부는 치료 없이 저절로 좋아지기도 하나 주요 장기가 침범된 경우에는 조기 치료가 필요

- 대부분 스테로이드에 좋은 치료 반응 → 감량하면 20 ~ 30% 에서 재발
-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재발하는 경우: 아자티오프린, 사이클로스포린, 메토틱렉세이트,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페틸,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등의 면역억제제나 리툽시맵이 사용되기도 함



류마티스내과 은영희 교수

진료분야 류마티스관절염, 통풍, 강직척추염, 베체트병, 루푸스, 퇴행성 관절염, 쇼그렌증후군, 전신경화증, 기타 결체조직질환

진료일정 오전 : 월요일 / 목요일
오후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All Together News

더 보기

01 강북삼성, 亞 최초 방사선 치료기 'ExacTrac Dynamic' 도입 치료 전과정 걸쳐 환자 체표면 실시간 추적

강북삼성병원은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치료 효과 증대를 위해 아시아 최초로 'ExacTrac Dynamic'을 도입했다. 이 장비는 치료 직전 한 차례 환자 자세를 확인하는 현행 영상유도방사선치료 (IGRT)와는 달리 열화상카메라와 3D 카메라를 통해 방사선치료 전(全) 과정에 걸쳐 환자 체표면 및 자세의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방사선 치료 정확성을 한 단계 더 높여주고 정상 장기의 방사선 피폭량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열화상카메라 영상을 이용, 특별한 표식 없이 치료가 가능한 점도 장점이다.

02 강북삼성병원, 외교부 '재외공관 비대면 의료 상담' 병원 선정

재외공관 비대면 의료 상담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직원 및 동반 가족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 세계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한다. 강북삼성병원은 최종 전담 병원으로 선정돼 2023년 4월까지 관련 사업을 맡는다. 강북삼성병원은 가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피부과를 포함한 19개 진료과 28명의 전문의로 구성된 해외 비대면 의료 상담 지원 전담 조직을 꾸려 가동하고 있다.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해 정보통신기술(CT)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 상담, 신체 및 정신 건강 상담 등을 폭넓게 제공할 예정이다.

03 메디컬 아시아 대한민국 글로벌 의료서비스 대상

K방역 안전경영 공로상(신현철 원장), 특성화센터부문(유방·갑상선암센터, 근골격질환센터) 수상



04 성형외과 김규남 교수, 대한창상학회 공식학술지 JWMR 우수논문상 수상

성형외과 김규남 교수가 대한창상학회(The Korean Wound Management Society, KWMS) 공식 학술지인 Journal of Management and Research(JWMR) 2021년 6월, 제17호에 교신 저자로 게재한 "Keystone Flap with Omega Variation and Sydney Melanoma Unit Modification to Cover Small-and Moderate-Sizes Defects in the Anterior Lower Leg" 제목의 논문으로 2021 Best Paper Awards(우수논문상)를 수상하였습니다.



성형외과 김규남 교수

05 <Top 30 high-impact clinical research articles of 2021> 선정

우리병원 소화기내과 박수경·진단검사의학과 권민정·감염내과 주은정 교수팀이 2021년 7월 국제학술지 <Clinical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에 게재한 논문이 미국 소화기학회 발행 3대 저널 편집위원장이 선정한 '2021년 가장 영향력 있는 임상연구 필독 논문 30選'에 수록되었습니다.

논문제목 Detection of SARS-CoV-2 in Fecal Samples From Patients With Asymptomatic and Mild COVID-19 in Korea

게재정보 Clin Gastroenterol Hepatol. 2021 Jul;19(7):1387-1394

접속 URL <http://doi.org/10.1016/i.cgh.2020.06.005>

주저자 소화기내과 박수경 교수(제1저자) 진단검사의학과 권민정 교수, 감염내과 주은정 교수(공동책임저자)

공저자 소화기내과 박동일 교수, 가정의학과 신호철 교수, 감염내과 정혜숙 교수, 진단검사의학과 우희연 교수

피인용횟수 Web of Science(58회) / Plum X (58회)
※ 2020 - 2022. 3. 22. 기준 본인 주저자 원저 최상위 피인용

우수논문 연구 소개

의학정보실 바로가기



가정의학과 조인영 교수



가정의학과 성은주 교수



데이터관리센터 장유수 교수



데이터관리센터 류승호 교수



영상의학과 권현주 교수



소화기내과 손원 교수



소화기내과 조용균 교수

우리병원 가정의학과 조인영, 성은주 교수와 데이터관리센터 장유수, 류승호 교수팀은 "최근 건강한 과체중 또는 비만한사람의 경우 체중감량이 지방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소화기 분야의 저명한 학술지인 'Clinical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 3월호에 게재하였습니다.

논문제목 Weight Change and the Development of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in Metabolically Healthy Overweight Individuals [ClinGastroenterolHepatol. 2022 Mar;20(3):e583-e599]

우리병원 영상의학과 권현주 교수와 소화기내과 손원, 조용균 교수팀은 "최근 대사이상지방간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지방간 환자의 간섬유화의 위험도가 증가" 한다는 연구결과를 소화기 분야의 저명한 학술지인 'Clinical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 5월호에 게재 하였습니다.

논문제목 Liver Fibrosis in Asians With Metabolic Dysfunction-Associated Fatty Liver Disease. [ClinGastroenterolHepatol. 2022 May;20(5):e1135-e1148]

SAMSUNG

강북삼성병원

진료예약 안내

| 진료협력센터 02) 2001-1100 (운영시간 외에는 핫라인으로 연결)

운영시간: 평일 오전 8:00 ~ 오후 6:30 / 토요일 오전 8:00 ~ 오후 1:00